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엄마의 소원**

"자, 다음은 6학년생들의 어머니와 함께 달리기입니다. 뛰어가서 저 앞 반환점에 놓인 쪽지에 적힌 지시대로 하여 주세요."

높은 가을 하늘 아래 운동장 위로 선생님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선생님의 손이 높이 올랐다. "타양!"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아끌며 힘껏 앞으로 내달렸다. 반환점까지는 우리가 일등이다 싶었다. 나는 한 손으로 운동장 바닥에 있는 쪽지를 펴들었다.

'엄마가 학생 업고 달리기'

순간 쪽지를 본 엄마가 당황한 눈으로 나를 쳐다 보았다. 어떻게 할 거냐는 눈짓이었다. 나는 재빨리 엄마 앞에 등을 돌리며 앉았다.

"내가 엄마 입을 깨. 빨리!"

엄마는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 내 등에 몸을 기댔다. 나는 두 손으로 힘껏 엄마를 추스려 엮은 다음 앞으로 내달렸다. 우리는 맨 앞으로 달려나갔다.

누군가 관중석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눈 앞이 흐려져왔다.

"아, 급추다."

그랬다. 엄마는 급사등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불렀다. 병신이라고... 죄를 지은 것도, 전염되는 것도 아닌데 단지 남들에게 보기 흉하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바느질감을 만지며 나를 기다리는 게 엄마의 유일한 낙이었다. 게다가 엄마는 날 낳아준 엄마가 아니었다. 당신 몸도 불편하면서 집앞에 버려진 고아인 나를 천자식처럼 입히고 먹여준,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었다.

"선생님, 우리 엄마예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그 무언가를 뉘어내고 나니 눈 앞에 선생님이 와 계셨다. 내 머리를 쓰다듬는 선생님의 눈가에 물기가 반짝거렸다.

운동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엄마가 했던 말이 있었다.

"호준아, 날 한 번만 업어줬으면 소원이 없겠다."

지난주 화요일 엄마가 돌아가셨다

엄마의 휘어진 등처럼 둥그런 봉분의 흙을 다독거리며 나는 천천히 그 흙 위에 몸을 엮들었다. 눈물이 주룩룩 흘러내렸다.

"엄마, 나 왔어. 출지 않아? 내가 돈 더 벌어서 따뜻한 데로 옮겨줄게. 엄마 기억나? 엄마 소원... 나 업어보는 거했지? 나 지금 이렇게 엄마 등에 업혔어. 무겁지? 이제서야 엄마 소원 이뤄주게 됐네? 엄마...기쁘지...? 엄마..."

◀그때 그랬지▶ **가장 긴 이름**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 삼천갑자동방석  
척치카포와리加里센타 워리워리세부리카  
무루셀라두루미 허리케인담벼락  
서생원의고양이 바둑이는똥똥이

\*\*\*\*\*

태어난 손자의 장수를 위해 오래사는 것들  
로만 모아 이름을 짓던 코메디언 서영춘  
씨와 구봉서 씨의 기억에 남는 명대사였습  
니다. 이기동, 박시명, 이대성 씨 같은 분들  
도 생각나게 하는 "웃으면 복이와요"...  
빨라야 생존하는 세상살이를 살면서 흑백  
TV가 주던 단순하고 소박한 웃음이 그림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5권 42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10월 19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하나님께서 "NO"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오만을 없애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NO"라고 말씀하시며  
오만은 내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NO"라고 말씀하시며  
인내는 고난의 산물이라고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얻는 것이라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NO"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은총을 줄 뿐이지  
행복은 너에게 달려 있다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영혼을 성숙시켜 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NO"라고 말씀하시며  
성장은 네 스스로 하는 것이고  
나는 네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쳐 줄 뿐이라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여쭙어 보았다.  
하나님께서 "Yes"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당신 외아들을 나에게 보내 주셨다고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도와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 드디어 네가  
바로 그 생각을 했구나" 하셨다.

**엄마가 딸에게**  
슬픈 영화를 보면 울어라  
눈물이 마른 사람은  
냉혈한이 되기 쉽다  
눈물은  
마음을 순화시키는 힘이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쌀의 영양은 쌀눈에 있다.  
쌀눈이 그대로 있는  
현미에 입맛을 들여라  
사람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건강미(美)다

# 주 일 에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46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22 (시편 96편)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474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정덕수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13:4-7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사랑은(5) "예의 바른 성도"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172 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특송 Response Song	박경주. 서지원. 유은주. 이요나. 전승원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 ◆10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5	이재영	한상순	김영길. 신경화	권정호. 김홍구
12	장현중	한정옥	"10월의 신부"	김인원. 김종우
19	정덕수	강은미	특 송	김종원. 권오걸
26	정희자	경덕현	권정호. 강현정	김종건. 김진근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 교우소식
  - \*출산. 이선훈 성도(김경일 집사). 14일, 새벽기도로 생명의 탄생을 준비한 후 아침에 귀여운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름 퀴즈: 첫 딸 이름 "은선", 둘째 딸 "은( )"  
\*힌트: 두 딸이 모이면 엄마가 되는군요)
  - \*한국방문. 윤형권 집사(23일 출국). 평안히 다녀오십시오  
<등록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 \*지재만 성도. 김현자 성도. 지윤수. 김효 성도. 연희. 성희  
☎ 268-9300 11Menen Pl. Manurewa
- "봄맞이 3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마지막 주간. 새벽 6시  
표어: "나를 통해 자녀의 길에 복을 주소서"  
"나를 통해 부모님이 행복하게 하소서"  
\*새벽에 볼 수 있는 것 "쓰레기 수거하는 청소차, 반바지로 조깅하는 건강한 남자, 새벽 찬 공기에 모자 쓰고 장갑 끼고 나란히 걷는 노부부, 밤새워 도로포장 마치고 표지판을 거두는 사람들"... 알고보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자녀에게 정말 귀한 것은 부지런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 오늘은 식사친교주일, 한 겨울의 따끈한 국밥에서 산뜻한 봄나물 얹혀진 비빔밥으로 변신한 오늘 식탁에서는 봄 내음으로 한껏 취할 것 같습니다
- 소파 Donation  
\*본교회에서 Hall 입구에 있는 작은 방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소파가 있으시면 Donation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한 시인들▶ 부모  
- 김소월 -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려라.

나는 어쩌면 생겨 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물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라

늙으신 어머니의 젖가슴을 보았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내게 생명을 주던 가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처진 살점에 불과했습니다. 두꺼운 각파귀 얹은 발 뒤꿈치를 칼로 도려내던 아버지의 발은 더 이상 내게 세상을 보여주던 그 힘찬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명의 수를 다해 가는 세포의 종착점이었습니니다.

지난 두 주간, 새벽 계단에 엎드린 모습에서 마지막 것까지 다 주려는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사랑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